교만의 언덕 아래서만 만나는 행복

(고린도전서 4:6~13)

6.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7.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8. 너희가 이미 배 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9.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10.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11.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12.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13.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교만의 언덕 아래서만 만나는 행복>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교만의 언덕 아래서만 만나는 행복”

교만과 행복이라는 두 단어는 상극인 단어입니다. 교만과 행복은 어떤 방식으로도 동시에 성립할 수 없는 두 개의 상황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교만하다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언제나 정해져있습니다. 교만 때문입니다. 행복의 천적은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행복은 절대로 주어질 수 없습니다. 반대로 교만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교만하지 않으면 행복은

마땅히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기쁨의 동산인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에덴을 잃어버린 것도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 교만은 스스로 생각하며 생각을 따라 주장과 의견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 삶에 대하여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 만의 일입니다. 천국 보좌에 앉아계신 하나님만 이 세상을 향하여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다는 것은 조물주가 이 세상을 향해 갖고 계신 생각과 말을 받아들이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문 8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 노릇이 무엇인지는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맨 처음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염두에 두면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건을 앞에 두더라도 왕으로서 자기의 생각과 말을 하나님께 반납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기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란 듣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이 왕 위에 즉위한 이후에 첫 번째로 행한 일은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말하지 않으며 자기의 생각과 말을 하나님 앞에 반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솔로몬을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예로부터 교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교만이란 내가 생각한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한 행복은 없습니다. 스스로 생각한 것을 기반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한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이 행복이 깨질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근본은 인간관계입니다. 모든 일이 인간관계로부터 일어납니다. 그런데 교만 때문에 행복이 깨어지고 불행 가운데 처했을 때 마음이 불편한 모든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로 돌립니다. 원망, 짜증, 분노, 불안, 근심, 걱정은 행복과는 관계없는 불행한 감정들입니다. 이렇게 불행한 이유를 모두 다른 사람에게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나타나는 일이 분쟁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쟁과 분파가 일어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는 일반인들의 모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의 흔적만 남아버리고 교회의 내용은 없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된 원인을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장까지가 분쟁과 분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마지막에서 교만이라는 단어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감사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제목을 “교만의 언덕 아래서만 만나는 행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풀어보자면 “교만의 언덕 아래로 내려와야만 행복을 만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높아진 상태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행복은 없습니다. 잘났으면 잘난 대로 사시면 됩니다만 행복하기를 꿈꿀 수는 없습니다.

높아짐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혹은 이 세상에서 좋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갖고 쌓아서 그 토대 위에 서려고 합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이 세상적인 가치를 가졌다는 이유로 생기는 특권의식은 교만한 마음의 대표적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를 졸업했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미 서울대 졸업이 마음이 올라설 토대가 되었다면 서울대를 나왔다는 생각 하나가 일평생의 모든 행복을 다 부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가치를 아무것도 갖지 못한 거지는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 것을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 교만은 여지없이 이 세상 것 토대 위에 서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아래로 보고 싶어 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자기의 삶을 비교하여 말해줍니다. 8절을 보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가르친 복음의 진리를 제쳐놓고 왕 같은 높은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을 보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고 하였습니다. 이 두 구절의 의미를 풀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느라 이 세상에 대해 생각이 죽고 판단이 죽고 지혜가 죽어서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그런데 너희는 똑같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이 세상에 대해서 스스로 지혜로운 자가 되었다. 나는 그러한 너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비교는 10~13절까지 이어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 맞으며 정처

가 없고 /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은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 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서는 이 세상 것을 많이 가져서 그것을 토대로 삼아 위에 서려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못 가진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서서 아래로 내려다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오히려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십자가 복음의 자리란 이 세상에서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낮고 비천한 십자가의 자리를 나의 자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교만은 이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 세상에서 높아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그 토대 위에 마음이 올라서는 것입니다. 이 교만과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여 생활화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8~13절까지 묘사한 대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 세상의 끄트머리를 향해 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삶을 묘사한 것은 단순히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와 똑같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기억하며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임을 고백한다는 것은 언제나 세상의 끄트머리 자리를 향하여 가는 방향성을 띠는 일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한다면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라 여기지만 엄밀하게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의 반대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물론 본문에서 겸손이 이야기됩니다만 그 내부에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 것을 자랑하는 것이 겸손하지

못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만과 비교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란 어떠한 것일까요? 먼저 교만은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 것을 가짐으로써 그것을 토대로 높아지려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세상 것이란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좋음이 문제가 됩니다.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지만 진짜로 좋은 것이 아니라 가짜로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짜로 좋은 것을 가졌다는 증거로 나타나는 일이 바로 교만입니다. 가짜로 좋은 것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을 토대로 마음이 올라서서 높아지고자 합니다. 가짜 좋음의 특징이 교만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가 추구했던 것은 어떨까요? 고린도 교회는 헬라문화권의 영향을 받으면서 말의 지혜를 좋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이 가짜 좋음임을 계속해서 가르쳐주었습니다.

한편 진짜 좋음을 가질 때에는 진짜 좋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반면 가짜 좋음은 가지면 가질수록 마음이 높아지면서 교만이라는 언덕이 생겨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사람을 아래로 보게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못 가진 사람은 심지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만 일부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벌레로 취급하는 발언이 공개되어 물의를 빚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권력을 못 가진 사람을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진짜로 좋은 것을 가지면 사람을 아래로 보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진짜로 좋은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신 천국 이외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천국을 가진 사람은 이상하게도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이 좋은 것을 어떻게 줄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일평생 사기와 강도짓만 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자기의 과거에 대해 죽고 세상에 대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가졌다면 이제 진짜 좋은 것의 힘이 이 사람의 인격인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짜 좋은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가질 수 있게 도와줄 것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진짜 좋은 것의 특징은 진짜 좋은 것을 갖지 못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이 몰라서 박해하고 해치고 죽이려는 원수일지라도 긍휼히 여깁니다. 이것이 진짜 좋은 것의 힘입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이 고매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일화는 유명합니다. 아들 둘을 죽인 공산당을 양자로 입양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화를 들으면 손양원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무엇을 갖고 있었기에 원수를 입양할 수 있게 되었나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좋은 것의 힘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인격이 뛰어났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의 후예인 죄인으로 태어난 이상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진짜 좋은 것을 가졌을 때 나타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 힘이 없으면 결국 분쟁과 분파가 인간관계의 특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싸웁니다. 드러내 싸우지 않더라도 속으로 욕을 합니다. 사장님 욕을 하고, 부장님 욕을 하고, 과장님 욕을 합니다. 윗사람도 마찬가지로 아랫사람을 욕합니다. 요새는 아랫사람이라고 하서 막무가내로 하대할 수는 없기에 속으로 “저런 걸 직원으로 데리고 있어야 하다니 이 무슨 기구한 팔자냐!”라고 욕을 합니다. 아무도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가짜 좋음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이 세상적인 좋은 것들을 어떻게 하든지 얻으려 하기 때문에 싸움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행복하려고 돈을 벌고자 합니다. 그런데 돈은 가짜 좋음이기에 벌면 벌수록 마음이 높아지게 됩니다. 행복의 반대 개념인 불행의 원인인 교만이 장성하고 숙성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해질수록 인간관계에서는 분쟁이 생깁니다. 부부간에 분쟁이 생기고, 부모자식 간에 분쟁이 생기고, 모든 관계에 분쟁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2~13절에서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사도 바울을 박해하는 원수 노릇을 해도 분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쟁이 일어나서 타인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생긴다면 그것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가진 것이 없어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몸으로부터 시작해서 무엇이든 내 것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서있으면 십자가 자리보다 조금이라도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는 교만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상태에 맞는 자리는 십자가 자리 이외는 없습니다. 십자가 자리는 세상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끄트머리이며 만물의 찌꺼기 같은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타락한 인간에게 어울리는 자리는 십자가 자리입니다. 십자가 자리보다 높아지면 무조건 교만한

상태입니다. 십자가 자리보다 1cm 높은 교만 때문에 인생 전체가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교만할 수 없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똑같아져야만 하는 것이 나의 처지입니다. 그 처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상태라면 무조건 교만해진 것입니다.

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돈을 가져야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말로는 돈이 행복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마음에서는 돈을 원합니다. 다만 마음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마음은 채워짐을 욕구하고 채워짐이란 곧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돈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마음은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진짜 좋은 것이라면 이 세상에서 돈을 모으려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진짜 좋은 것의 특징은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돈이 진짜로 좋은 것이라면 그 돈을 주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 버는 일에 열중합니다. 돈이 많은 부자나 재벌이라면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누구를 봐도 긍휼한 마음이 생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 많이 가진 한 사람이 돈 없는 열 사람의 주머니로부터 돈을 긁어모으려고 합니다. 돈 적게 가진 사람도 자기보다 더 적게 가진 사람의 주머니에서 어떻게 하든지 돈을 긁어모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돈이 진짜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마음은 가진 돈더미 위에 올라서고자 합니다. 그러는 동안 인생의 모든 행복을 다 폭발시켜버립니다.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지만 정작 행복을 폭발시키는 가장 강력한 파괴력이 돈에 있습니다. 돈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모든 가치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채찍에 맞아 살이 찢기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죽으신 자리만이 나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벗어나면 마음은 무조건 높아집니다. 고작 1cm 높아질지라도 그것이 인생의 행복을 완전히 깨뜨리고 맙니다. 행복이 깨진 상태에서 나타나는 일이 분쟁과 분파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불만이 생기고 편을 가르게 됩니다. 굳이 사람을 가리지 않아도 만나는 사람마다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이유는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흠집을 내서 헐뜯고자 합니다. 다만 내가 아무리 마음에서 타인을 헐뜯고 원망해도 그 사람에게 무슨 지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의 행복을 파괴하고 있을 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분쟁과 분파가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결론적 원인을 교만에서 찾습니다. 교만은 어딘가에서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하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교만입니다. 스스로 겸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만의 반대말은 겸손이 아닌 긍휼입니다. 가짜 좋은 것을 가지고 그 위에 설 때 생겨난 교만의 반대는 진짜 좋은 것을 가졌을 때 타인을 향해 갖게 되는 긍휼의 마음이지 겸손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될 진짜 내 모습입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닌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손발에 못이 박히지도 않고 채찍에 살이 찢기지도 않고 가시 면류관을 쓰지도 않은 상태에서 멀쩡히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교만입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자리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만 해도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을 가진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잊어버리기만 해도 이미 세상 것을 가진 것이고 세상의 가치관을 붙잡은 것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9절에서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매…”라고 하였고, 13절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 가지려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러한 세대의 흐름과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남은 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관계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긍휼의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바탕이 되려면 진짜 좋은 것을 가져야만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긍휼의 마음이 바탕이 되었다면 분쟁이나 분파는 생길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12~13절에서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인격이 만들어낸 일이 아니었습니다. 인격에서 답을 찾고자 한다면 사도 바울은 훌륭한 사람이지만 우리는 그저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갖고 있었기에 그럴 수 있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9절을 보면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고 하였습니다.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것은 로마의 원형경기장을 연상시킵니다. 이곳에서는 죄수들을

세워두고 사자나 표범 같은 맹수를 풀어놓아 구경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이러한 입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는 높아지는 경쟁에서 나락으로 떨어져서 더 이상 경쟁에 참여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맹수의 밥이 되게 해놓고 구경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십자가가 그러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러한 사람으로 규정하시는 것이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비참하고 낮고 천한 모습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 자리에서 하늘로 직통하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을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구경거리가 되고 비천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한 후에 세상 사람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가졌든, 권력을 가졌든, 지식을 많이 가졌든, 덕망이 높다고 칭송을 받든, 어떤 사람도 할 수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끄트머리에 두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은 취급을 받았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18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 쉬지 말고 기도하라 /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였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 쉬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분쟁하고 분파를 만들 겨를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생겨났지만 이들은 정말로 사역자들을 본받고 싶다는 마음에서 분파를 만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훌륭해 보였기에 바울을 딛고 설 토대를 만들려고 했을 뿐입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 복음을 사건이 아닌 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로 전해진 십자가 사건 안으로 뛰어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십자가 사건에 뛰어든다는 것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며, 이 세상의 끄트머리에 둔 자요, 이 세상의 구경거리인 자이고, 이 세상에서 누구도 미워할 수 없는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십자가 자리를 뛰어들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는 누구나 다 세상 것을 모으고 싶은 교만이 생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상 것을 가져야만 교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것을 좋다고 여기고 소망만 해도 교만이 생깁니다. 소망은 가진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가졌다면,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다면, 어떻게 되었으면”이라는 소망 자체가 어설픈 토대가 되어 높아지게 됩니다. “나는 언젠가 돈을 벌 사람이다.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나는 너희들보다 이런 면에서 장점이 있다.”라는 마음으로 높아지는 것입니

다. 인간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자마자 이렇게 수없이 많은 다양한 형태로 높아지기를 꿈꾸게 됩니다. 그리고 높아지지 않음에서 나오는 불평과 불만을 갖습니다. 행여 높아지더라도 그것이 진짜 좋음이 아니기에 불평과 불만을 갖습니다. 이런 것이 모든 인간관계에서 원망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로 나타납니다. 인간을 인간 취급하지 않는 갑질 등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낮은 자리이고 교만의 언덕이 다 끝나는 아래의 자리입니다. 이 십자가를 벗어나면 당장 사람에 대한 원망이 생기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해보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진짜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은 원수에 대해서도 원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의 인격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진짜 좋은 것의 힘이 바로 원수조차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음으로써 이 세상에서 갖고 싶은 모든 것에 대해 죽기를 바랍니다. 진짜 좋은 것인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붙잡고 그 진짜 좋은 것의 힘으로 모든 인간관계를 긍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축복 중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세상의 끄트머리, 세상의 구경거리,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자리를 나의 자리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낮은 자리에서 주님이 열어 놓으신 길을 따라 진짜 좋은 아버지만을 유일한 있음으로 의식하고 유일한 좋음으로 욕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좋은 것을 소망하면서 미리 가지게 하시고 이 좋은 하나님을 갖지 못한 모든 사람을 향하여 긍휼을 바탕으로 관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